

간호대학생의 학습유형, 시간관리 행동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김인경¹, 성지아^{2*}

¹한서대학교 간호학과, ²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Learning style, Time management behavior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Nursing student

In-Kyoung Kim¹, Ji-A Seong^{2*}

¹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과 그들을 지도하는 교수자가 학생 스스로가 학습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올바른 시간관리를 통해 학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유형, 시간관리 행동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자료수집은 2013년 11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 간 이루어졌으며 D시 및 C도의 4곳의 4년제 대학교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학습유형, 시간관리행동, 자기주도학습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자는 246명으로 연구목적으로 이해하고 설문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SPSS/WIN 19.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설명하는 모형은 시간관리 행동($\beta=.629, p<.001$), 주관적 대학생활 적응정도($\beta=.153, p<.001$)으로 구성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51.4%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교수자는 학생 본인이 스스로의 학습을 찾아 계획, 수행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격려해 가야하며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 내에 관련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grounds for nursing students and teaching professors to confirm the importance of planning and preparing academic careers according to proper time management by determining the learning style exactly for themselves. For this purpose we investigated the learning style and time management behavior of the nursing student in university. The data was collected for 1 months from Nov. 1 to Dec. 2, 2013 in four universities which located in D city and C province. The research tool were used to measure of the learning style, time management behavior and self-directed learning. The participants were 246 nursing students at university who understand the purpose of study and agree to answer it.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regression using the IBMSPSS/WIN 19.0 program.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that the predicting factors for self-directed learning were time management behavior($\beta=.629, p<.001$)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beta=.153, p<.001$). The variables explained the self-directed learning by 51.4%. This study shows that professors have to encourage students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effective time management for planning, performing and evaluating the academic career for themselves and take into account the related programs about self-directed learning.

Keywords : Learning-style; Nursing; self-directing Regulation; Student; Time-management

*Corresponding Author: Ji-A Seong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Tel: +82-42-580-6437 email: kkamsifo@dst.ac.kr

Received March 6, 2015

Revised (1st April 30, 2015, 2nd June 09, 2015, 3rd July 14, 2015)

Accepted July 16, 2015

Published July 31, 2015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개개인마다에게 풍부한 지식을 요구하며, 많은 정보를 스스로 찾고 분석하며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특히 이와 같은 능력은 향후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학생에게요구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우선 학습 시 학습자는 자신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세운 계획에 맞춰 주변에 활용 가능한 자원을 탐색하여 적절한 학습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보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문제 해결을 정확하게 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는 것 또한 중요하다[1].

자기주도적 학습은 1960년대 후반 성인 교육 분야에서 성인 학습자들이 교육자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가 자신들의 학습을 수행하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시작되었으며 Tough[2]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학습과정에 대한 계획과 방향을 학습자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하였다[3].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업성취도나 비판적 사고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로서 전문직으로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4].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교에 들어와서 초, 중, 고교의 학생 때 경험했던 교육과 다른 교육을 경험한다. 즉 초, 중, 고교에서 나라의 정해진 교육과정에 의해 모든 학생이 획일화된 학습을 했다면 대학의 교육은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능력, 관심분야에 맞춰 자율적으로 본인이 선택하여 책임지고 학습해야 하고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이론 뿐 만이 아니라 1000시간 이상의 교내 시뮬레이션 실습 및 교외 임상실습을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의 사고를 통해 대상자를 간호해야 하므로 학습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자신이 직접 학습을 주도하고 비판적인 사고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 같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학교육에서 교수자는 학습자 개개인의 역량이나 조건, 특히 개인의 학습효과 향상을 위해 다양한 학습유형의 고려가 필요하다[5]. 선행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은 학습유형에 따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차이를 보였으며 교수자는 교육에 앞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6]. 대학에서의 교육은 20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들

은 시간 사용의 자율성 또한 갖게 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학습을 위해서 앞서 언급한 학습유형 이외에도 학생들이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7].

이 같은 시간 관리는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체계화 시키는 것으로서[8] 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을 만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9]. 그 밖에 권말숙[10]의 연구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비판적 사고 능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고 그 밖에 연구에서 제시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관련이 있는 변수로는 시간관리, 학습태도, 학습동기, 학습매체활용도,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 결정성 동기 등이 있다[11-14]. 최근 국내 간호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간호평가원에서는 간호교육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인 사고 능력 함양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 전체 간호학과의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을 바꾸고 간호학과에 교육 인증제를 도입하여 간호교육 환경 및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고 있다[15]. 결국 앞으로의 간호교육에서도 원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학습을 책임지도록, 즉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찾고 해결하며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실제 학교 밖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문제를 해결이 필요로 되는 매 순간 자신의 업무에 의미를 갖고 스스로를 조절하며 업무를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있으며 이는 대상자에게 정서적 몰입과 자신의 일에 대한 몰입을 주므로[16] 이는 현 간호교육에 있어 완성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함께 다루지지 않았던 시간관리, 학습유형,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한다. 현재 연구에서는 시간관리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유형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각각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미있는 이 세 가지 변수를 통합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습유형, 시간관리 행동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통해 간호 대학생과 그들을 지도하는 교수자가 학생 스스로가 학습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올바른 시간관리를 통해 학습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유형, 시간관리 행동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학생의 학습유형, 시간관리 행동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유형, 시간관리 행동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해 파악한다.
- 대상자의 학습유형별 시간관리 행동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해 파악한다.
- 대상자의 학습유형, 시간관리 행동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유형, 시간관리 행동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관계를 조사하고, 간호학생의 학습유형, 시간관리 행동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D광역시 2곳, 충북 Y군 1곳, 충남 S시 1곳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대상자에게는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IRB 승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지 작성 전 및 진행기간 동안 연구대상자는 어떠한 위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자로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자기평가 기입방식으로 설문하였다. 대상자 수는 통계방법에 근거한 G 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0.05$, 검정력 $1-\beta=0.95$, 효과크기 0.15, 예측변수 19개로 217명을 산출하였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250부를 배부하였

고 이중 응답이 미흡한 설문지 4개를 제외한 최종 연구대상자는 246명이었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일반적 특성 5문항, 학습유형 12문항, 시간관리행동 23문항, 자기주도학습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도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및 학업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총 5문항으로 나이, 성별, 학년, 선호하는 강의유형, 대학생활적응정도를 폐쇄형 질문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학습유형

학습유형은 Kolb[17]의 Learning Style Inventory Version 3.1를 임세영 등[5]이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Kolb학습유형검사 한글버전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2개의 문항이며 성인대상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자기성찰로 평가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자신의 상황과 가장 일치하면 4점, 두 번째로 일치하면 3점, 세 번째로 일치하면 2점, 상이하면 1점을 줄 수 있다. 전 항목은 반드시 점수를 표기하게 하며 질문마다 항목 당 같은 점수를 줄 수 없도록 하고 기입된 점수는 도구 프로토콜에 따라 항목별 합산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나타내는 구체적 경험, 반성적 성찰, 추상적 개념화, 능동적 실험의 4가지 학습특성으로 구분한다. 최종적으로는 추상적 개념화와 구체적 경험의 점수 차를 세로좌표로, 능동적 실험과 반성적 성찰의 점수 차를 가로좌표로 표시하면 사분원이 만들어지고 위치에 따라 확산형, 동화형, 수렴형, 융합형으로 응답자의 학습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

임세영 등[5]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67-.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가 .67-.80이다.

3) 시간관리 행동

시간관리 행동은 박동혁 등[18]이 개발한 대학생 시간관리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목표와 계획(9문항), 미루기/급한처리(8문항), 실천전략(6문항)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며 총 23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며, 0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개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로 최종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시간관리 행동을 잘함을 의미한다. 박동혁 등[18]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89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가 .85이었다.

4)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이석재 등[19] 이 개발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 학습계획(20문항), 학습실행(15문항), 학습평가(10문항)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며 1점 '매우 드물게' 2점 '드물게' 3점 '보통', 4점 '자주', 5점 '매우 자주'로 최종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좋을 것을 의미한다. 이석재 등[18]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가 .91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SPSS/WIN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습유형, 시간관리 행동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학습유형에 따른 시간관리 행동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Chi-square test,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학습유형, 시간관리 행동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로 분석하였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특성 및 주요변수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0세이며 성별은 여학생 91.1%, 남학생 8.9%이다.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이며 학교성적은 3.5-4.0미만 46.3%, 3.0-3.5미만 33.2%, 4.0이상 12.6%, 3.0미만 7.9% 순이었다. 선호하는 수업방식은 강의식 49.2%, 실습 28.0%, 시청각매체 17.5%, 토론/발표 2.8%, 동영상강의 2.4% 순이었고 주관적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잘함 43.5%, 보통 41.5%, 매우잘함 9.3%, 못함 5.7% 순이었다.

Table 1. Time Management Behavior and Self-Directed Learn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46

Variable	n(%)	Time Management Behavior			Self-Directed Learning		
		M±SD	T or F	<i>p</i> Sheffe	M±SD	T or F	<i>p</i> Sheffe
Age		20.6±2.6					
Gender							
Female	224(91.1)	48.25±44.50	1.20	.231	151.57±19.40	.270	.788
Male	22(8.9)	44.50±14.07			150.41±19.38		
Grade							
Freshman ^a	56(22.8)	46.73±12.37	4.095	.007	151.18±15.05	5.934 [*]	.001
Sophomore ^b	63(25.6)	44.84±13.49		b<d	147.95±17.58		b,c<d
Junior ^c	77(31.3)	47.58±13.69			148.31±21.54		
Senior ^d	50(20.3)	53.66±15.64			161.30±19.52		
Instruction Style Preference							
Lecture	121(49.2)	48.48±14.90	.485	.747	151.21±20.77	.218	.928
Practice	69(28.0)	46.47±12.61			150.45±18.44		
Audio-Visual	43(17.5)	47.48±13.60			153.14±17.82		
Discussion	7(2.8)	52.14±20.11			151.71±19.31		
Moving Pictures	6(2.4)	51.33±6.28			156.17±13.95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Bad	14(5.7)	42.79±13.27	7.647	<.001	136.93±11.55	10.573 [*]	.001
Moderate	102(41.5)	43.76±12.18		a<d	146.33±18.65		a,b<d
Well	107(43.5)	49.39±17.45			155.93±17.91		
Very well	23(9.3)	52.24±13.78			162.86±21.76		

Table 2. Learning Styl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46

Variable	Diverging n(%)	Accommodating n(%)	Assimilating n(%)	Converging n(%)	χ^2	p
Gender						
Female	83(37.1)	78(34.8)	52(23.2)	11(4.9)	3.181	.365
Male	8(36.4)	11(50)	3(13.6)	0(0.0)		
Grade						
Freshman	14(25.9)	31(54.5)	10(18.2)	1(1.8)	15.054	.089
Sophomore	25(39.7)	22(34.9)	12(19.0)	4(6.3)		
Junior	33(42.9)	18(23.4)	22(28.6)	4(5.2)		
Senior	19(38.0)	18(36.0)	11(22.0)	2(4.0)		
Instruction Style Preference						
Lecture	45(35.6)	38(32.2)	32(27.1)	6(5.0)	29.854	.039
Practice	17(24.6)	42(60.9)	9(13.0)	1(1.4)		
Audio-Visual	19(44.3)	11(25.6)	10(23.3)	3(7.0)		
Discussion	2(28.6)	3(42.8)	1(14.3)	1(14.3)		
Moving Pictures	3(50.6)	1(16.7)	2(33.3)	0(0.0)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Bad	4(28.6)	3(21.4)	6(42.9)	1(7.1)	8.165	.518
Moderate	39(38.2)	33(32.4)	25(24.5)	5(4.9)		
Well	42(39.3)	42(39.3)	19(17.7)	4(3.7)		
Very well	6(26.1)	12(52.2)	4(17.4)	1(4.3)		

연구대상자의 주요변수 특성은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학습유형은 확산형 37%, 융합형 36.2%, 동화형 22.4%, 수렴형 4.5% 순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시간관리 행동의 평균은 47.92점이고 하위요인인 목표와 계획은 21.88점, 미루기/급한처리는 14.26점, 실천전략은 11.79점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평균은 151.47점이며 하위요인인 학습계획은 10.43점, 학습실행은 6.72점, 학습평가는 5.67점이었다.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유형, 시간관리 행동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정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유형, 시간관리 행동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정도는 Table 1, Table 2와 같다.

Table 1에서 시간관리 행동은 여학생이 평균 48.25점으로 남학생 44.50점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20$, $p=.231$). 학년에서는 4학년 53.66점, 3학년 47.58점, 1학년 46.73점, 2학년 44.84점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4.095$, $p=.007$) 그 중 3학년이 2학년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시간관리 점수의 차이를 보였다 ($b<d$). 수업방식은 토론/발표 52.14점, 동영상상의 51.33점, 강의식 48.48점, 시청각매체활용 47.48점, 실습 46.47점 순이었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485$, $p=.747$). 주관적 대학생활 적응정도에서는 매우 잘함이

평균 52.24점, 잘함 49.39점, 보통 43.76점, 나쁨 42.79점 순이었다($F=7.647$, $p=.001$).

자기주도적 학습에서는 여학생이 151.57점, 남학생이 150.41점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학년에서는 4학년이 161.30으로 2학년 147.95점, 3학년 148.31점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점수 차이를 보였다($F=5.934$, $p=.001$). 주관적 대학생 생활 적응정도에서는 매우 잘함이 162.86점으로 보통 146.33점, 나쁨 136.93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 차이를 보였다($F=7.647$, $p=.001$).

Table 2에서 학습유형은 대상자가 선호하는 수업방식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chi^2=29.854$, $p=.039$). 선호하는 수업방식이 강의식이면 학습유형은 확산형(40.8%), 실습은 적용형(59.7%), 시청각매체활용은 확산형(44.3%), 토론/발표는 적용형(42.8%), 동영상강의는 확산형(50.6%)으로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학습유형별 시간관리 행동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연구대상자 학습유형별 시간관리(하위요인)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학습유형별 시간관리의 하위요인인 첫 번째 목표와 계획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수렴형 26.90점이 확산형 21.56점, 적용형 21.44점 보다 두드러지게 높았다($a,b<c$). 두 번째 미루기/급처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세 번째 실천전략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수렴형 16.18점이 동화형 10.98점보다 두드러지게 높

Table 3. Score for Learning Style, Time Management Behavior and Self-Directed Learning N=246

Variable	Subcategory	N	%	Min	Max	M	SD
Learning Style	Diverging	91	37.0				
	Accommodating	89	36.2				
	Assimilating	55	22.4				
	Converging	11	4.5				
Total		246	100				
Time Management Behavior	Goal setting and Planning			6	35	21.88	5.53
	Procrastination			0	32	14.26	7.36
	Practicing strategies			1	24	11.79	5.46
	Total			11	84	47.92	14.03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Plan			41	95	64.50	10.43
	Learning Practice			38	70	52.29	6.72
	Learning Evaluation			16	48	34.73	5.67
	Total			110	204	151.47	19.36

Table 4. Time Management Behavior and Self-Directed Learning according to Learning Style N=246

Variable	Time Management Behavior				Self-Directed Learning			
	subcategory	M±SD	F	p Sheffe	subcategory	M±SD	F	p Sheffe
Diverging ^a	Goal setting and Planning	21.56±5.84	3.437*	.018	Learning	62.59±10.47	5.474*	.001
Accommodating ^b		21.44±4.97			Plan	66.23±10.43		
Assimilating ^c		22.09±5.69				63.00±10.30		
Converging ^d		26.90±4.41				73.90±10.39		
Diverging ^a	Procrastination	14.18±7.23	1.144	.332	Learning	52.07±7.18	1.618	.186
Accommodating ^b		14.69±6.91			Practice	52.47±5.86		
Assimilating ^c		13.09±8.41				51.58±6.91		
Converging ^d		17.18±5.98				56.36±7.69		
Diverging ^a	Practicing strategies	11.68±5.54	2.853*	.038	Learning	34.54±5.47	4.068*	.008
Accommodating ^b		11.85±4.83			Evaluation	34.41±5.25		
Assimilating ^c		10.98±6.91				34.41±6.38		
Converging ^d		16.18±5.19				40.45±5.20		

았다(c<d). 연구대상자 학습계획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수렴형 73.90이 확산형 62.59점, 동화형 63.00점보다 두드러지게 높았다(a,c<d). 두 번째 학습실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세 번째 학습평가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수렴형 40.45점이 확산형 34.54점, 적용형 34.41점, 동화형 34.41점 보다 두드러지게 높았다(a,b,c<d).

3.4 학습유형, 시간관리 행동,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간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시간관리, 학습유형, 자기주도적학습 간 상호상관 관계는 Table 5와 같다. 상관관계분석에서 시간관리 행동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정적 상관관계($r=.661, p<.001$)를 나타냈다. 학습유형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변수인 시간관리, 주관적 대학생활 적응정도, 학년, 성적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얼마나 설명해 부는지 탐색하기 위해 각각의 변인을 독립변

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자기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검정을 실시하였고 검정치는 1.929로 오차항들은 서로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제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 (tolerance)와 분 산확대인자(VIF)를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공차한계 범위는 0.363-0.966으로 0.1이상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분산팽창인자의 범위는 1.001~1.045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설명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은 시간관리 행동($\beta=.629, p<.001$), 주관적 대학생활 적응정도($\beta=.153, p<.001$)으로 나타났다. 각 관리 행동을 잘할수록, 주관적 대학생활 적응정도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Table 5. Correlation among Learning Style, Time Management Behavior and Self-Directed Learning N=246

	Learning Style	Time Management Behavior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Style	1		
Time Management Behavior	0.661 ($<.001$)	1	
Self-Directed Learning	.115 (.639)	.702 (.001)	1

Table 6. Influencing factors on Self-Directed Learning

N=246

Variables	R ²	Adjusted R ²	β	t	p
Time Management Behavior			.629	11.447	$<.001$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153	2.836	$<.001$
	.514	.501		F=40.498	(p<.001)

4. 논의

본 연구는 D광역시 2곳, 충북 Y군 1곳, 충남 S시 1곳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학생의 학습유형, 시간관리 행동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과 그들을 지도하는 교수자가 학업에 대한 올바른 계획과 준비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전체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0.6세였다. 대상자는 학년은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학과 특성상 여학생이 많았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학습유형에 대한 분류에서 연구 대상자는 확산형(Diverging)이 37.0%, 적응형(Accommodating) 36.2%, 동화형(Assimilating) 22.4%, 융합형(Converging) 4.5% 순이었다. D'Amore, James과 Mitchell(2012)의 호주의 간호대학생의 학습유형을 확인한 연구에서는 확산형이 29.5%, 동화형(Assimilating) 28.8%, 적응형(Accommodating) 23.9%, 융합형(Converging) 7.9% 순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하주영[14]의 연구에서 대상자는 동화형이 33.8%, 수렴형이 31.9%, 적응형이 24.7%, 확산형이 9.5%로 나타났고 김정미[21]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은 동화형이 32.5%로 나타나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간호대학생들이 노출되어 있는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가 이뤄진 2010-2011년도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간호학과 교육이 강의식에서 비판적 사고능력을 중시하는 교육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였으며 2012년도에는 간

호교육의 전반적인 개혁으로 간호학에서도 교육학적인 부분을 일부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은 변화된 교육방식으로 본인들이 학습을 주도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되었다[14]. 결과 중 학습유형이 동화자형에서 발산자형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학생들은 이전 보다 좀 더 구체적인 경험과 반성적 관찰을 능력이 향상되었고 이를 통해 상황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좀 더 학업에 개방적인 태도와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15]. 이런 상황에서 교수자들은 학생들이 유추할 수 있는 사례 등을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고 현재 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간호 교육 과정에는 이런 부분이 다수 반영되어 있어 향후 좀 더 간호대학생의 학업의 질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의 주요변수인 시간관리 행동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보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시간관리 행동은 2학년보다 4학년이 잘 하고 있었다. 학교생활 적응 정도에서도 매우 잘 적응하고 있는 학생이 시간관리 행동 점수가 높았다. 김선미와 유미현[22]의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시간관리 행동의 비교 연구에서 영재학생의 시간관리 행동이 일반학생보다 유의미하게 ($p<.05$)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 밖의 연구에서도 시간관리 행동은 성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시간관리 행동은 학생들의 생활 만족도와도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22] 교수자로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며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올바른 시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맞춤형 상담이나 학기 시작 전 과목별 스케줄 작성 및 달성여부를 확인 하도록 하는 것 또한 대안으로 제시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시간관리 행동의 세 가지 요인인 목표와 계획, 미루기/급한처리, 실천전략 중 목표와 계획이 평균 이상인 21.88점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간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간호사의 핵심역량을 정해 교육시키고 있으며[24] 이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접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간호학과 커리큘럼 중의 ‘간호과정’이라는 과목 등이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과목 및 교육 과정은 보건 분야 및 그 외에 타 학문에서도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올바른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시간관리 행동과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 본 연구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정도는 평균 정도였으며 학년, 성적, 학교생활 적응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학년이 높고 학교생활 적응 정도에서 매우 잘 적응하고 있는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았고 이 또한 시간관리 행동과 비슷한 맥락이며 이 밖의 지금까지 선행된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습동기 및 태도, 개인의 신념, 자신이 속한 환경 등이 있었다[25].

일반적 특성 중 선호하는 수업방식에 따른 학습유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유형별 시간관리 행동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보면 동화형이 확산형과 적용형에 비해 시간관리 행동에서 목표와 계획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천전략 점수에서는 수렴형이 동화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의 관계를 본 유사한 연구가 많지 않아 비교 분석의 어려움이 있지만 논리적이고 정확하며 행동적인 면보다는 사와 이해의 초점을 둔 동화형이 다른 집단보다 어떤 일에 있어서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정, 중요한 일부터 처리, 나누어 처리, 시작한 일 끝까지 완수, 목표의 수립과 달성을 위한 노력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교육대학교 학생의 학습유형에 따른 학습전략을 본 김은정[26]의 연구에서도 논리형, 통합형의 학생이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암기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유형에 따른 시간관리의 행동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렴형은 시간관리 행동 중 실천전략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데 생각하는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문제 해결 능력

과 의사결정이 뛰어난 학습자적 특징 때문에 이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보면 수렴형이 확산형과 적용형에 비해 계획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가에서는 수렴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인 세 변수의 상관관계에서 학습유형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115, p=.639$). 같은 학습유형 도구로 측정하지 않았지만 박지원과 방경숙[6]의 연구에서 적극적인 학습유형을 가진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으며 같은 학습 유형 도구를 사용한 하주영[14]의 연구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학습자의 학습유형은 상관관계가 없음을 재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 같은 결과를 보인 것을 하주영[14]은 자기주도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네가지의 학습유형을 통합하여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간호대학생의 임상능력, 학업성취도, 생활만족도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학습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유형별 지도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실제 학습 유형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교수자로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습유형을 알고 수업에 접근하는 태도는 바람직하나 실제 학습자 개개인의 유형을 고려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변수인 시간관리, 주관적 대학생활 적응정도, 학년, 성적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얼마나 설명해 부는지 탐색하기 위해 각각의 변인으로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설명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은 시간관리 행동, 주관적 대학생활 적응정도로 51.4%의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같은 변수로 영향력을 본 연구가 없어 정확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구성 시 그들이 시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주관적 대학생활 적응정도, 즉 넓은 맥락에서 매 순간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학습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게 될 것이며 이는 학생의 학습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27]. 그러므로 교수자는 학생

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학업성적, 성적 향상 방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 또한 함께 가지고 가야 될 것이다.

학습 유형은 개인의 학업 취향이므로 그들은 12년간의 교육과정 동안 어느 정도의 자신들만의 유형을 만든 상태일 것이다[26].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변화 및 조절을 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다량으로 들어오고 있는 정보 즉 방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어떠한 처리 기술로 효율적으로 이들을 처리하고 있는지의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이 모두 올바르게 세워진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선택하고 계획하며 평가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28].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교수는 학생 본인이 스스로의 학습을 찾아 계획, 수행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패턴, 즉 효율적인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격려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입장에서 매 순간 다양한 상황에 처해지는 학생들에게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유형, 시간관리 행동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각 변수간의 관계를 조사하고, 간호대학생의 학습유형, 시간관리 행동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학생과 그들을 지도하는 교수자가 학업에 대한 올바른 계획과 준비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시간관리 행동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재확인 할 수 있었으며 그밖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정도가 학습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 다뤄졌던 변수들이 활용되어 본 연구가 급변하는 간호교육에서 현재의 실정에 맞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간호교육 외에도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고 있는 비슷한 보건 분야의 타 전공에서도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변수 외에도 학습에 대한 좀 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접근의 시도가 필요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Y. E. Chin, J. W. Lee, "Research the trends and tasks of self-directed learning studie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 24, No. 5, pp. 221-249, 2007.
- [2] A. M. Tough, "The adult; learning project (2nd ed)" Austin, TX: Learning Concepts. 1979
- [3] R. Hiemstra, "Self-directed learning In T. Husen, & T. N. Postlethwaite (Eds.)",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2nd edition)*. Oxford: Pergamon Press.
- [4] H. S. Cho,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Statistics*, Vol. 32, No. 2, pp. 57-72. 2007.
- [5] S. Y. Lim, B. C. Lee, H. S. Choi, M. S. Ahn, W. I. Lee, "Practical Engineering teaching method : Development of the Kolb LSI 3.1 Korean Version.", *Journal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Vol. 4, No. 1, pp. 30-44, 2012.
- [6] J. W. Park, K. S. Bang, "Learning style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at one university."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 7, No. 1, pp. 36-42, 2010.
- [7] Y. O. Youn, O. S. Kim, "University students' time management : Affecting variables and correlations with life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students at Korean national open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5, No. 6, pp. 71-82. 2007.
- [8] L. A. Zampetakisa, N. Bouranta, V. S. Moustakis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creativity and time management" *Thinking Skills and Creativity*. Vol. 5, No. 1, pp. 23-32. 2010.
DOI: <http://dx.doi.org/10.1016/j.tsc.2009.12.001>
- [9] S. M. Han, "Development and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strategy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7, No. 3, pp. 1-30. 2006.
- [10] M. S. Kwon,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387-394.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3.387>
- [11] S. H. Cho, S. H. Huh, "The Effect of Time-management skills training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and self-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usan*

-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Vol. 21, pp. 117-131. 2008.
- [12] S. T. Lim, Y. M. Lee, S. M. Eo, "The relations of parenting attitudes to adolescent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ith self-differentiation as a mediator",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9, No. 1, 2012.
- [13] C. W. Nam, S. Y. Jang, S. R. Kim, "A study on variables of the use of media affecting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Vol. 18, No. 3, pp. 313-339, 2012.
- [14] J. Y. Ha, "Learning style, learning attitude,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357-366.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3.355>
- [15]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attestation of nursing education. 2013 retrieved December. 16, 2014. from <http://kabone.or.kr/kabon02/index04.php>
- [16] T. W. Chang, A. J. Hong, "Enhanc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involvement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and absorptive capacity",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Vol. 12, No. 2, pp. 17-34, 2011.
- [17] A. Y. Kolb, D. A. Kolb, "The Kolb learning style inventory version 3.1 2005 technical specification" pp. 9-10, 2005 retrieved November. 10, 2014. from http://learningexperience.com/media/2010/08/tech_spec_lsi.pdf
- [18] D. H. Park, M. K. Lee, H. C. Shi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time management behavior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Vol. 18, No. 4, pp. 801-816, 2006.
- [19] S. J. Lee, Y. K. Jang,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2013" retrieved December. 16, 2014. from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3847>
- [20] A. D'Amore, S. James, E. K. Mitchell. "Learning styles of first-year undergraduate nursing and midwifery students: a cross-sectional survey utilising the Kolb Learning Style Inventory," Nurse Education Today, Vol. 32, No. 5, pp. 506-515, 2012.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11.08.001>
- [21] J. M. Kim, "Personality type, learning style, self-dire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7, No. 2, pp. 1-25, 2010.
- [22] S. M. Kim, M. H. Yoo, "Comparison of time management behavior, life satisfaction between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time management behavior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Vol. 23, No. 3, pp. 315-333, 2013.
- [23] B. K. Britton, A. Tesser. "Effects of Time-management practice on college grad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83, No. 3, pp. 405-410, 1991.
DOI: <http://dx.doi.org/10.1037/0022-0663.83.3.405>
- [24]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assessment standards for education of Korea (the course of the nursing bachelor's degree)" 2012.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 [25] K. S. Kim, H. Y. Kim, "Two young English learners' self-directed learning process and barriers", Foreign Languages Education, Vol. 18, No. 1. pp. 95-120, 2011
- [26] E. J. Kim, "The Effect of the cognitive & affective Learning types of the university students of education on their learning strategies", Journal of learning strategy intervention, Vol. 3, No. 2, pp. 21-37, 2012.
- [27] I. K. Kim, J. A. Kim. "Self-regulated learning, attention control and Yangseng of nursing undergraduat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197-205.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2.197>
- [28] G. Kocaman, A. Dicle, A. Ugur.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level of nursing students enrolled in a problem-based curriculum",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48, No. 5, pp. 286-290, 2009.

김 인 경(In-Kyoung Kim)

[정회원]



- 2009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졸업 (간호학석사)
- 2012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졸업 (성인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노인건강, 종양, 건강기능식품, 간호교육

성 지 아(Ji-A Seong)

[정회원]



- 200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 대학원 간호학과 졸업 (간호학석사)
- 2012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수료 (성인간호학박사수료)
- 2012년 3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시뮬레이션, 성인, 여성